

전체주제: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함

메세지 1

###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

성경: 단 4:26, 34-35; 벰전 1:2, 17; 2:21-25; 3:15; 4:12, 15-19; 5:5-8

- I. 우리는 반드시 “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는 줄”을 알아야 한다 - Dan. 4:26:
- A. 천국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- 마 4:17; 5:3:
    - 1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처인 하늘에서부터 다스리시고 권위를 행사하신다 - 왕상 8:39.
    - 2.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- 시 103:9; 계 4:1-2.
    - 3.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다스림이다;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다.
  - B. 하나님의 “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” - v. 34:
    - 1. “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” - 단 4:35a.
    - 2. “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” - 단 4:35b.
  - C.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위해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다;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 - v. 37.
- II.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:
- A.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,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—벰전 1:2:
  - B.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로서,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—벰후 1:1-4, 3:13.
  - C.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통치하신다.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—벰전 1:17, 4:17:
    - 1.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, 이 서신들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심판은 본질적인 항 목들 중 하나로서 거듭 언급된다—벰전 2:23, 4:5-6, 17, 벰후 2:3-4, 9, 3:7.
    - 2.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해 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시어,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의로 가득한 새로운 우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신다—벰후 3:13.
  - D. 베드로전서 1 장 17 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수행하시는 심판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, 매일의 심판이다:
    - 1.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셨다—벰전 1:3, 15, 17.

2.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(벧전 1:15-16).  
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심판관이 되시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실 것이다—벧전 4:15-17, 히 12:9-10.
- E. 하나님의 통치에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—벧전 4:17:
1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.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—벧전 1:17.
  2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을 위해 불같이 흑독한 시련을 사용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다루시며, 이러한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—벧전 4:12, 17.
  3.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다—벧전 4:6.

III. 베드로의 서신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—벧전 1:17, 2:21, 24, 3:15, 4:17, 5:5-8:

- A.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.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—요 1:14, 14:17, 고전 15:45 하, 6:17.
- B. 동시에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통치자이시다—벧전 4:19.
- C.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—요 1:12-13, 3:3, 5-6, 고후 5:17:
1.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름이 필요하다—벧전 1:17.
  2.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—벧전 2:2, 4:17, 벧후 1:5-7.

IV.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였고,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다—요 6:38, 벧전 2:21-24:

- A.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,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속 맡기셨고,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. 주님은 이러한 의로우신 분을 신뢰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—벧전 2:23.
- B.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언하셨을 때,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접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 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였고 그분은 그분의 속 부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셨다—시 16:7, 사 50:4.

## 메세지 2

###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

성경: 벵전 1:17, 2:21-24, 4:17-19, 5:6

- I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—요 3:15, 1:12-13, 벵전 4:13-19, 5:6-8.
- II. 베드로의 서신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 집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룸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—벵전 1:6-8, 2:3-4, 19, 21-25, 3:18, 22, 4:1, 15-16, 5:8-9.
- III.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—벵전 5:6:
  - A.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을 가리킨다—벵전 1:17, 4:17.
  - B.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과 협력하여,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—벵전 5:6.
- IV.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근심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시험을 체험할 것이다 - 1:6-7:
  - A. 6절에서 시련은 믿는 이로써 우리의 생명의 자질을 시험하는 고난이다.
  - B.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- 벵전 2:19-23; 3:14-18.
  - C. 베드로 전서 1장 7절의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함에 있다.
- V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.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, 그분을 믿으면서 “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”으로 즐거워한다.- 벵전 1: 8:
  - A. 믿는 이들이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는 것은 놀랍고 비밀스런 것이다.
  - B. 우리는 믿음으로, 즉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주입된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(갈 3:2)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한다 - Gal. 3:2.
  - C. 이 믿음은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언급되어 있는 시련, 즉 시험 아래 있다.
  - D. 영광으로 가득찬 즐거움은 영광 안에 잠긴 즐거움이다. 그것은 그리스도의 표현되심으로 가득 찬 즐거움 이다 - v. 8.
- VI.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—벵전 4:19:

- A.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고,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서 그분의 애정 어린 신실한 돌봄은 그분의 공평함 과 더불어 수행된다.
- B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. 우리는 그 분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봄에 맡겨야 한다—마 10:28, 11:28-29.

VII.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를 향하여 살 수 있다—벧전 2:24:

- A. 하나님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진다(시 89:14 상).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.
- B. ‘의를 향하여 산다’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들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 — 벧전 2 : 24
  1.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롭게 살도록, 즉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았다.
  2.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남으로써, 그리스도인의 생활 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를 향하여 살게 된다—롬 6:8, 10-11, 18, 엡 2:6, 요 14:19, 딤후 2:11.